

김종규 군수의 '목발투혼'

2023년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으로 유치됐다. 지난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회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대한민국 부안 새만금은 폴란드 그단스크를 600여표 대 360여표로 따돌리고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확정했다. 100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유치단은 환호성을 질렀으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더욱 빛났다. 그 주인공은 김종규 부안군수로 목발을 짚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업무수행 중 발을 삐끗하면서 뼈에 금이 갔다. 그런 상황에서도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해 그 먼 아제르바이잔까지 날아간 것이다. 직항이 없어 터키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하루나 걸리는 비행이었지만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한 김종규 부안군수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는 김종규 부안군수의 '목발투혼'이 만든 기적이다.



지난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회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돼자 전북유치단원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이날 김종규 군수는 업무수행 중 발이 삐끗하면서 뼈에 금이 가 목발을 짚고 있었다.

‘스마트잼버리’가 유치 확정 불렀다

폴란드와의 유치 경쟁서 '스카우트 성지화' 내세워 실시간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 가능서 높은 점수 받아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로 글로벌 부안 발판 마련에 최선"

Q.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가 어느덧 10여일이나 지났다. 그동안 좀 쉬었나?

-오랜만에 편안하게 쉰 쉬었다.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확정이라는 좋은 결과 갖고 돌아와 기분 좋게 보내고 있다. 앞으로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유치한 기쁨은 뒤로 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에서 도전·모험정신 기르고 꿈을 갖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Q.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출국 직전에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가신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직항이 없다.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노선에 탑승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갔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노선이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가 자신이 있었다. 비록 깁스에 목발까지 짚고 갔지만 꼭 유치할 수 있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왔다.

Q.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한 폴란드의 유치전이 굉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도착해보니 현장 분위기는 백중우세로 판단됐다. 부안 새만금과 폴란드 그단스크가 박빙 상태로 긴장감이 최고조였다. 북한 도발과 이동거리가 멀다는 등 폴란드의 네거티브가 거셴다. 조심스러운 승리 낙관 속 전투의욕이 불타 올랐다. 세계스카우트 총회 전 미리 출국해 10여개국을 개별 면담하고 최종 표상다지기에 집중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승부를 걸렀다고 생각한다. 폴란드는 평범한 방식이었지만 부안 새만금 한 편의 캠페인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 부안 새만금에서 해야 하는 이유와 '스카우트 성지화'를 내세워 캠페인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동안 회원국 방문 시 요구사항 등을 모두 담아 항공료 및 야영장이용료 할인 등을 제시한 것이 주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도 '신의

한수'였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이후 유치를 확신했다.

Q. 그렇게 경쟁한 경쟁 구도에서 어떤 점을 어필했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카우트 성지화'를 내세웠다. 폴란드 그단스크는 대회 개최 후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했다. 부안 새만금은 대회 개최 후 시설을 유지해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와 스카우트역사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시 부안을 찾아 2023년을 추억하고 스카우트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력 어필했다. 5세대 기반 와이파이 등을 이용한 스마트잼버리로 실시간 전 세계 친구와 가족 등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Q. 2023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으로 유치됐다. 경제효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 세계잼버리는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열린다. 전 세계 168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9억원, 고용유발 1054명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투자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고 국가적 바이벤트싱 국제행사 개최로 국제 제과 및 K-pop 등 문화자원과 국내 관광자원을 연계해 한류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Q. 부안군은 이제 손님맞이에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당장 새만금 인프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유치의 기쁨은 뒤로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 기할 때이다.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하드웨어 사업은 전북도에서 주관할 것이다. 부안군은 한 가지라도 더 부안을 널리 알리려 전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많이 부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 문화, 자연을 총망라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개최 후에도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 조성 등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을 찾고 싶은 꿈을 갖도록 하겠



지난 18일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라는 값진 성과를 얻고 금의환향한 전북유치단.

다. 더 나아가 2023 세계잼버리는 국제행사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범정부적 지원이 있어 유치가 가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이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까지지만 최종적으로는 2023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레저관광용지 그러니까 새만금홍보관까지 연결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부안군민과 전북 도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아직도 16일의 감동이 가슴 속에 가득하다. 그날 아제르바이잔에 울려 퍼진 '코리아'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들어본 코리아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 부안군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전 국민의 열정·성원·관심·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세계잼버리 유치는 결코 쉽지 않았다. 폴란드는 부안 새만금 보다 1년이나 앞서 유치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송하진 도지사 등의 적극 유치활동이 큰 힘이 됐다. 부안 새만금은 초반에 열세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진정성 갖고 회원국을 방문해 설득했다. 비행기로 하루 이상 날아가는 곳도 많았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엔 자신 있었다. 드넓은 부안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종규 군수가 환영받고 있는 모습.

이 미래 꿈을 그리는 것 상상만 해도 기분 좋고 들뜬다. 그 기운으로 전 세계 돌며 회원국에 호소했고 대부분 응송하게 환대해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전 세계 청소년들을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세계잼버리 연계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세계잼버리 성공적 준비·개최로 글로벌 부안의 발판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안=이옥수 기자